

185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성창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기구 위원 강연
 “신기후체제에서 원자력산업의 미래 전략 있어야”



성창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기구 위원

한국원자력산업회(원자협)가 주최한 제185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5월 19일 더팔래스호텔 서울 로얄볼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성창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기구 위원은 ‘신기후체제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녹색 기후 기술 메커니즘과 한국의 신에너지산업 및 R&D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성창모 위원은 강연에서 프랑스 파리협정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부상했음을 알리면서 그 핵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5년 주기의 래칭 메커니즘으로 저탄소경제로 가는 각국의 경주가 시작됐으며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규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NDC) 각국의 사업 계획으로 “미국은 발전소 배출 규제, 자동차 연비 규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통한 감축 목표로 이행하고 청정발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도 정부가 글로벌 기술 협력 전략 수립, COP21 기술 분야 대응, 기술협력 창구 지정 등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각 부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자원 활용 및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등 기후관련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말했다. 성창모 위원은 특히 “신기후경제체제에서 원자력산업의 역할과 미래 전략이 있어야 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형원자로 이용과 미래 공유경제에 대비한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주) 원자력 교육 실시



한국원자력산업회(원자협)는 삼성물산(주) 신입 및 기성직원 50명(신입직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육을 4월 18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1주차 강연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설 원자력평생 교육장(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4주차 강의는 삼성물산(주) 판교 사옥(경기 성남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삼성물산 교육생들은 교육 기간 중인 5월 3일~ 4일 양일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 등 국내 원자력시설 현장을 방문하면서 원자력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